

스스로 깨달음의 주인 되라



33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느 곳에서든 가는 곳마다(隨處) 주인공이 되면(作主), 그곳은(位處) 모두 진리다(皆眞).’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설명 가지고 신문에 글을 쓴다고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정도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것이 중요하지요.

깨달음 주체자 되면 있는 그 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 긍정적·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내 인생 이끌 수 있어

이 선어는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입제외현(?~867) 선사의 말로서 그의 법어집 <입제록>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위진인(無位眞人,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입제의 선(禪)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은 ‘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이 된다면 현재 서 있는 그곳은 다 참되고 진실한 곳’이라는 뜻이지만, 보다 자세히 말하면 ‘스스로 깨달음의 주체자 즉 주인이 된다면 현재 서 있는 그곳은 모두 다 아름답다 진리의 세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의 소유이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감정에 이끌려 주체자로서 주인공 공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번뇌와 번민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 객(客)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번뇌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번민이 깊게 물려와 일신(一身)을 감돌고 있다.’는 어느 시인의 독백처럼, 번민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경함해 봤지만 이상하게도 번민은 조용할수록 더 찾아오고 한가할수록 더 찾아옵니다. 좀 잊어볼 요량으로 술이라도 한잔 하면 한숨이 되어 찾아오고, 여행을 하면 여수(旅愁)가 되어 찾아옵니다. 만사가 번민으로 변하여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언제쯤 번민으로부터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람 같은 번뇌 망상에 얽매어 하루 종일 고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자각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서가 전도되었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이 깨달음의 주체자/주인이 된다면 삶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면 번뇌는 객(客)이 됩니다. 객은 아무리 많아도 무력합니다.

깨달음의 주인이 되면 결핍 없는 무애한 삶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근심 걱정 등 번민이 들어와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때의 번뇌는 그저 일상사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번뇌가 들어와도 나오는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주 당당해집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떳떳해 집니다. 번뇌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세상은 분별처럼 따뜻하고 환해집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은 모두 아름다운 세계가 됩니다. 입처개진(立處皆眞). 말

그대로 바로 지금 그 자리가 진리가 현현(顯顯)한 자리(眞眞)입니다.

삶의 주체자, 생활의 주체자, 인생의 주체자가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 그날의 운수나 일진, 여건,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울했던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환한 일에 너무 상심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 하루를 유익하게 활용하여 마음은 좀 한가롭게, 육체는 좀 바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매일 지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면 바빠도 피곤하지 않지만, 날마다 여건을 탓하면서 부정적으로 살면 한가해도 몸과 마음은 매우 고단합니다.

생활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녁에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2시간만 자신을 아를 담게 만드는데 활용한다면 어느 분야든 5년이면 하우가 쌓여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전공 말고 다른 전공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100% 증가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는 어디서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의 삶은 보람 있는 삶입니다. 인생과 예술을 만들 수 있고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번뇌에 끌려서 살지 말고 자신이 주체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구속 없는 자유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참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입제록>은 유명한 선서(禪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열반하신 서용 큰스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항상 <입제록>을 강의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어특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음 여인들의 수행법

수행자가 이루려는 세계는 여래출현의 법계

법신(法信)

중국 송나라 때 정토종의 선지식 가운데 풍씨부인(馮氏夫人)이 있었다. <예념미타도량참법>과 <화엄경 영험록>에 기록된 그녀의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풍씨부인의 이름은 법신(法信)이며 소사(少師)를 추증받았는데, 휘(諱)는 순지(詢之)이다.

부인은 진선사(陳宣使)에게 시집을 갔는데, 진선사의 사랑과 공경을 받으며 결혼생활을 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병이 많았던 법신은 결혼 후 병이 더욱 심해졌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진단하자, 그는 자수심(慈受深 또는 守心) 선사를 찾아뵙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화엄경>과 <16관경(觀無量壽經)>을 주며 말했다.

“육식을 피하고 채식하여 이 경을 독송하시오.”

이에 부인은 육식을 끊고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모두 버리고 나서 탑을 정소하고 염불수행에 전념하였다. 그녀는 가고 앉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가운데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하였다.

한 철만에 탈갈만공이라든 선(禪)한 생각이 일어나면 청정수와 꽃을 버쳐 송경(誦經)과 행도(行道)를 한결같이 하였다. 이렇게 10년간 내태함을 온갖 하지 않자, 드디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건강해졌으며 청정한 기운이 왕성해져서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화엄경 영험록>은 “법신은 스님의 말

씀과 같이 10년 동안 <화엄경>과 <관무량수경>을 독송하여 병도 낫고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인은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계승을 썼다.
“연을 따라 업 지음이 그 몇 해이고/ 늙은 소가 헛되이 밭을 갈았네/ 신심(身心)을 거두어 일찍 돌아갔으면/ 사람들에게 쿠투멍 똥똥은 면했을 것일.”

친척들이 괴이하게 생각하자 부인이 말하길, “가면 서방정도로 가는데 무슨 괴이함이 있으랴” 하고는 이내 병들어 누웠는데, 미미한 천식(喘息)

병 치유 위해 채식, 계율 지키며 ‘아미타불’ 염불 보현행·염불수행·16관법으로 깨달아 ‘왕생극락’

기운이 있었다. 그는 임종 하루 전날, 홀연히 눈을 크게 뜨고 단정히 앉아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정신이 정토에서 노닌다. 면전에서 아미타불께 예를 올리는데, 왼쪽에는 관음보살께서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께서 계신다. 돌아보니, 백천만억의 청정환 불자들이 머리를 조아려 내기가 국토(극락정토)에 와서 태어남을 경축해주고 있다. 궁전의 숲과 연못에서 나오는 광명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화엄경>과 <관무량수경>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

다음날, 부인은 편안하게 앉아서 숨졌고 집안 사람들이 미묘한 향내음을 맡았는데, 인간세계의 것과 같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 다리를 하였는데 그

몸이 살아있는 것과 같았다고 전한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법신은 <화엄경>의 보현행과 염불수행, <관무량수경>의 16관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왕생극락했음을 알 수 있다. 염불수행의 소의경전인 <관무량수경>과 마찬가지로 자력수행을 강조하는 <화엄경>에도 정토경전에서 볼 수 있는 염불이나 본원(本願), 왕생, 정토, 극락세계 등의 용어들이 등장한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도 구원겁(久遠劫) 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한 공덕으로 정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아미타불이 중생구제를 위한 48대원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불하게 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보살행과 다르지 않고,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역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화엄경>은 <법화경>과 함께 선종의 ‘본래성불(本來成佛)’ 사상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상하고 이상하다.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찌서 미혹하여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를 가르쳐서 망상과 집착을 영원히 여리고 자기의 몸속에서 여래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화엄경> ‘여래출현품’)

이 고귀한 법문에 따르면, 수행자가 이루려는 세계는 곧 중생이 본래 구족한 지혜 즉, 여래성(如來性)이 그대로 발현되는 여래출현의 법계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석왕사 중창 3주년 기념 개신대제=부천 석왕사가 중창 3주년 기념 개신대제를 개최한다. ‘석왕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9월 29일 오전 11시 법회를 시작으로 30일 오전 11시 이시우 前 서울대 교수가 ‘지구환경변화와 불자들의 자세’를, 10월 1일 오전 11시 우희중 서울대 교수가 ‘공우병, 도대체 무엇인가’를 강의한다.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입학하는 삼천배 정진기도는 매일 500배씩 10월 5일까지 진행한다. (032)663-7771

●불선사 교양·경전·불교의식 강좌 개최=남양주 불선사가 제3기 교양강좌, 제1기 경전반, 제2기 불교의식반

을 모집한다. 9월 9일 개강하는 제3기 교양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업이 진행된다. 5일 오전 10시 개강하는 제1기 경전반은 6개월 과정으로 <화엄경>을 공부한다. 제2기 불교의식반은 조계종 아산작법학교 인묵 스님이 직접 교육한다. 4개월 과정으로 4일 오전 10시 청풍루에서 개강한다. (031)527-1951

●보리수선원 9월 수행=대구 범상사 백고좌법회가 인기다. 78일째 맞는 9월 3일에는 진철 스님(만불선원), 4일에는 화안 스님(포천 동화사 주지), 5일에는 일진 스님(문사승가대학감이) 법회에 온다. (053)766-374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혁신적인 기공요법(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원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증목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75,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한, 선착순 8명)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종감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달인다. 여기에 매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